<10.16873/tkl.2017. 76. 5>
한국문학논총 제76집(2017. 8) 5~20쪽

특별강연(1): 한국문학회 40년 둘러보기*

이 헌 홍**

1. 한국문학회 창립, 그 취지와 의의

- 1977년 7월 2일 14:00 서면 성지다방 회의실에서 10명의 창립회원이 발기 총회를 개최함.
- 여기서 학회 명칭(한국문학회) 및 총 22조의 회칙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함.

창립회원: 김승찬, 김종우, 김준오, 김중하, 노재찬, 류탁일, 양왕용, 이병혁, 장관진, 최동원

초대 임원진

학회장: 김종우, 총무이사: 류탁일, 연구이사: 김승찬,

출판이사: 김중하, 감사: 최동원・노재찬

** 창간사(『한국문학논총』 제1집 소재)의 요지

- 우리의 문학을 보다 깊이 연구하고 또 널리 전수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코자 함.
- 『한국문학논총』의 간행이 끝없이 이어져서 우리 문학 연구의 초석이 되기를 다짐함.

---

* 한국문학회 편집위원회 주: 이 발제문은 개별 연구논문이 아니라 2017년 6월 17일 부산대학교 인덕관에서 개최한 <한국문학회 창립4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특별 기조강연 원고임을 밝혀 둡니다.

**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 순학술적 연구지인 『한국문학논총』은 이 지역 초유의 일이기에 흡족한 마음과 자긍심.

⇒ ① 부산·경남 지역 연구자의 소통과 교류 협력의 무대가 되고자 함.
② 연구 분위기 활성화를 통한 연구역량의 증대에 기여코자 함.
③ 학회의 명칭: '한국어문학연구'라는 종합적 풍토에서 '한국문학' 연구로 전문화함. 수도권 이외 지역 최초의 한국문학 전문연구 학회임.
④ 지역에서 전국으로: 지역의 주체적 독자적 연구역량 결집과 그 확산을 도모함.

2. 한국문학회 출범의 토양과 초창기 연구발표의 단면

- 1953년에 국어국문학회(1952년 부산 동광동에서 출발) 부산지회가 결성됨.
- 1959년에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회의 『국어국문학지』 창간(5집부터 『국어국문학』으로).
- 1965년에 한글학회 부산지회 결성.
- 1970년대에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 부산여자대학의 『수련어문논집』, 부산사대 국어교육학과의 『어문교육논집』 등이 간행됨.
- 1980년대에 경성대학교의 『용연어문논집』, 동의대학교의 『동의어문논집』,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우암어문논집』 등이 간행됨.

⇒ ①부산 지역의 대학별 국어국문학과(국어교육학과) 단위 연구자에서 한국문학 전공자들 중심의 전문연구 집단으로 뭉쳐 그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범함. ②지회가 아닌 주체

적 독자적 학회임. ③어문학 연구학회가 아닌 문학전문 연구학회임.

▹ 제1차 연구 발표회
때: 1977년 9월 25일 16:00 장소: 부산대 학사운영회의실
발표자 및 논제: 최동원, 익재 소악부에 대하여
김준오, 문학에 있어서 동일성(identity)의 문제

▹ 제2차 연구발표회
때: 1977년 10월 27일 14:00 장소: 부산대 학사운영회의실
발표자 및 논제: 김중하, 어조 분석에 의한 소설의 이해

▹ 제3차 연구발표회
때: 1977년 11월 24일 15:00 장소: 부산대 학사운영회의실
발표자 및 논제: 이병혁, 도은 문학 소고

▹ 제4차 연구발표회
때: 1977년 12월 30일 15:00 장소: 부산대 시습관
발표자 및 논제: 김승찬, 찬기파랑가 연구

▹ 제100차 연구발표회 - 기획주제 : 「한국문학과 역사」
때: 1993년 9월 18일 10:00~17:00
장소: 부산대학교 인덕기념관 대회의실
주제 및 발표자: 김준오 외 6명 회원의 발표와 종합토론을 가짐.

⇒ ① 1회 발표부터 100회까지의 발표자와 논제가 『한국문학논총』 제14집(1993년 11월)에 휘보로 정리되어 있으며, 그 이후의 학술발표 관련 사항도 그때그때 논총의 휘보에 수록되어 있음.

② 학회 창립부터 5년까지는 매년 평균 10회 내외, 100회 전후까지는 7~8회, 1990년대 중・후반에는 5회 내외, 2000년대 이후에는 3회 내외의 연구발표회를 가짐.

3. 한국문학회 회원 변동(증가)의 추이

- 창립회원 10명.
- 1978년, 1979년, 1980년에 정상박 외 21명의 회원 가입. 총 31명의 회원.
- 1981년~1985년에 김무조 외 26명 가입. 총 57명의 회원.
- 1986년~1990년에 23명 가입. 총 80명의 회원.
- 1991년 한국문학논총 제12집에 총 97명의 회원명부가 회원번호와 함께 수록됨.
- 1992년(제13집)에 회원 번호 98번~107번까지 10명의 회원 가입.
- 1993년(제14집)에 회원 번호 108번~117번까지 10명의 회원 가입.
- 지역별 회원 명부 작성 이전인 1998년(창립부터 20년)까지의 회원은 180여 명.
- 1999년 6월(제24집)부터 지역별 회원 명부를 작성 수록함. 이때 회원 수는 286명.
- 2005년 8월(제40집)까지 회원 수는 417명.
- 2017년 현재의 회원 수는 470명.

⇒ ① 1993년 당시의 회원 117명은 전원이 부산 경남 지역 거주자임.
② 1998년 당시의 회원 180여 명 중에서 140여 명이 부산 경남 지역 거주자임.
③ 1999년 6월 당시 회원(286명)의 절반 정도가 부산 경남 이외 지

역의 거주자임.

④ 2017년 현재 부산 경남 이외 지역의 회원 비율은 약 60%임.

⑤ 회원 증가의 추이와 회원의 규모, 지역별 분포상 등을 고려할 때 한국문학회는 전국 규모의 한국문학 연구전문 학술단체임.

4. 『한국문학논총』 간행의 주기와 논문 집필자의 광역적 분포

- 제1집부터 제15집까지는 연 1회 간행(6・7합집은 1984~1985년, 8・9합집은 1986~1988년).
- 제16집(1995년)부터 29집(2001년)까지 연 2회 간행함.
- 제30집(2002년)부터 75집(2017년 현재)까지 연 3회 간행함.
- 제1집(1978년)부터 12집(1991년)까지는 투고자가 모두 부산・경남 지역 회원이었는데, 13집부터 이 지역 이외 회원의 논문이 수록되기 시작함.
- 제12집까지의 수록 논문을 살펴보면, 제1집부터 차례로 13편, 8편, 15편, 13편, 13편, 11편(6・7합집), 11편(8・9합집), 7편, 19편, 18편으로 모두 128편임(1집 당 평균 10편 내외).
- 제13집(1992년)부터 제20집(1997년 6월)까지의 수록 논문 총 127편인데, 이 중에서 부산 경남 지역 이외 회원의 논문은 11편임(8.6%).
- 제21집(1997년 12월)부터 제30집(2002년 6월)까지의 논문은 모두 166편인데, 이 중에서 부산 경남지역 이외 회원의 논문은 63편임(37.9%).
- 제31집(2002년 10월)부터 제40집(2005년 8월)까지의 논문은 모두 143편인데, 부산 경남지역 이외 회원의 논문은 50편임(33.3%).
- 제41집(2005년 12월)부터 제50집(2008년 2월)까지의 논문은 모두 150편인데, 부산 경남지역 이외 회원의 논문은 50편임(33.3%).

- 제51집(2009년 4월)부터 제60집(2012년 4월)까지의 논문은 모두 126편인데, 부산 경남지역 이외 회원의 논문은 48편임(38.1%).
- 제61집(2012년 8월)부터 제70집(2015년 8월)까지의 논문은 모두 135편인데, 부산 경남지역 이외 회원의 논문은 62편임(45.9%).
- 제71집(2015년 12월)부터 제75집(2017년 4월)까지의 논문은 모두 60편인데, 22편이 부산 경남지역 이외 회원의 논문임(36.7%).

⇒ ① 『한국문학논총』 창간호(1978년 12월)부터 제75집까지의 수록 논문은 모두 1036편인데, 이 중에서 한국문학회의 발상지인 부산 경남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 회원의 논문은 모두 306편으로, 그 비율은 30%에 이른다.

② 여타 지역의 분포는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등으로 다양하며, 90년대 후반 이후로는 지역별로도 적정 분포를 보인다.

③ 이로 보건대, 이제 한국문학회는 명실공히 전국적 규모의 학술연구단체로 발돋움하였다 하겠다.

5. 『한국문학논총』 발간 비용 등에 얽힌 사연

- 제1집에서 제9집까지는 회원의 회비 및 자체 찬조금 등으로 충당함.
- 제10집(1989년), 11집, 12집, 14집(1993년)은 간행비의 일부를 문교부(교육부)가 지원
- 제13집(1992년), 16집(1995년)은 부산직할시(광역시)가 간행비의 일부를 지원. 이에 따라 부산시민을 위한 한국문학 관련 강좌를 개최하기도 하였음.
- 제20집・21집(96년) 및 22집・23집(97년)까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간행비의 일부를 지원.

- 제24집(99년 6월)부터 29집(2001년 6월)까지는 간행비 지원이 중단됨.
- 이 기간에 학술연구단체의 논문집에 대한 등재(등재후보) 인증 제도가 마련되고 이에 따른 심사평가가 수행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간행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게 됨.
- 한국문학회는 2002년에 등재후보학술지, 2004년에 등재학술지로 인증을 받아 제30집(2002년 6월)부터 제62집(2012년 12월)까지 10년간 학술지 발간 경비 및 학술대회의 일부 경비를 한국학술진흥재단(2010년부터 한국연구재단으로 개편됨)에서 지원받음.
- 제63집(2013년 4월)부터 제71집(2015년 12월)까지는 등재학술지 평가 판정에 따라 발간 경비의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다가 제72집(2016년 4월)부터 다시 등재학술지로 인증을 받음으로써 현재까지 간행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음.
-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한불교 천태종 삼광사가 제23집(1997년) 간행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였고, 이어서 2002년 10월(제31집)부터 2004년 12월 사이에도 한국문학논총 발간 경비의 일부 자금을 지원하여, 연 3회의 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29집 간행비의 일부는 주식회사 LG의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 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등재학술지 제도는 해당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질적 수준을 국가기관이 보증하고, 학술지의 간행 경비나 학술행사의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투고논문의 형식적·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한 것으로, 등재학술지의 경우 논문 게재 요건이 엄격하고, 편집위원회 규정과 연구윤리 규정 등이 매우 까다롭다. 이를테면, 심사위원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하고, 심사결과의 지적 사항을 객관적 지표로 계량화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등으로 판정을 내린 후에라야 논문집에 수록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제도적 요건에 수반되는 행정적 절차와 실무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학회의 임원진들이니 그 업무는 실로 만만치가 않다.

② 소위 '등재후보학술지' 및 '등재학술지' 제도의 취지나 그 성과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잠깐 살펴보았지만, 이런 일을 연 3회의 학회지 발간 때마다 치러야 하니 그 노고가 오죽하겠는가? 게다가 이 제도는 매 2년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격을 새로이 부여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격 박탈이라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등재학술지 제도가 갖는 위세가 대단할 뿐만 아니라, 자격이 유보되거나 박탈되는 경우에는 그 회생을 위한 절차 또한 번다하다. 그러므로 이제는 각종 학술단체의 업무가 과중되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 내지는 개선책이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③ 등재학술지로의 신규 진입이나 기존 등재지의 계속 여부 등에 관련된 각종 업무 때문에 학회장은 말할 것도 없고, 총무·연구·출판 이사와 간사, 그리고 편집위원장이 겪어온 고뇌와 희생, 그리고 탈락되지 않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처절하다 일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문학회 창립 임원진의 노력과 공적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등재학술지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를 위해 노심초사한 임원진들의 희생과 봉사 또한 만만치 않을진대, 이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④ 각종 연구학회의 활동을 위한 기본 요건은 연구자 집단, 연구발표회, 연구논문집 간행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논문집 간행경비 확보 문제는 인문학도들 모두에게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문학회 창립회원과 초기의 회

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갹출하여 마련한 논문집 간행경비 등에 얽힌 노력과 성과는 대단하다 하겠다.

⑤ 이와 함께, 한국문학회가 전국 유수의 학술연구단체로 성장하기까지 회원 모두의 노력은 물론, 역대 학회장의 재정적 기여 또한 적지 않았음을 언급해두고자 한다. 학술지의 질적·양적 수준 제고 요구에 따르는 경비의 확보를 위해 역대 회장 중의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임기를 전후하여 적지 않은 성금을 쾌척하였다. 이런 희생과 봉사로 유사시의 『한국문학논총』 간행 경비를 위해 축적해온 비축자금 규모는 현재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계승 보전되고 있으니 참으로 뜻깊은 일이다.

** 이처럼 『한국문학논총』의 간행에 얽힌 여러 사례로 미루어 보건대 한국문학회의 앞날은 밝은 모습으로 길이길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6. 기획 주제 및 특집

기획주제	수록집	필자
한국문학과 역사 - 한국문학회 연구발표 100회 기념 학술대회 (1993년 9월 18일, 인덕기념관)	제14집(1993년 11월)	정상진, 정경주, 이진오, 김준오, 강남주, 장양수, 명형대 등 7명
중국 조선족 문학의 전통과 변혁 (1), (2)	제16집(1995년 12월) 제20집(1997년 6월)	김승찬, 김중하, 김준오, 이헌홍, 조태흠, 박남훈 등 6명
일본 사행문학 연구의 현황과 방향	제18집(1996년 7월)	김성진, 이채연, 이동찬 등 3명.
한국문학과 성	제19집(1996년 12월)	김정자, 황경숙, 황병익, 송철호, 김경복, 고현철, 박훈하 등 7명

한일간 문학의 상호 영향관계 연구	제22집(1998년 6월)	류탁일, 김성진, 이진오, 이연숙, 이채연, 임종찬 등 6명
한국의 대중문학 연구, 그 현황과 전망	제25집(1999년 12월)	임성래, 송희복, 김창식, 이미향, 최미진, 유성호 등 6명
한국문학의 문헌학적 접근	제26집(2000년 6월)	이복규, 정명기, 김준형, 김영준, 류준경, 이창헌, 김병권, 김석배, 박재연, 유동석, 황선엽, 이종묵 등 12명
한일 기층문화의 상관성과 의미 분석	제26집	이헌홍, 노성환, 황의종, 박동석, 한태문 등 5명
해외문화 접촉과 한국문학 (1), (2)	제30집(2002년 6월)	김영, 김태준, 구모룡, 오양호, 박경수 등 5명
	31집(2002년 10월)	조태흠, 임기중, 민현기 등 3명
통일 대비 한국문학의 과제 (1), (2)	제36집(2004년 4월)	김종회, 전영선, 손진은 등 3명
	39집(2005년 4월)	강혜선, 이원수, 남송우, 송명희, 홍용희 등 5명
한국문학 텍스트 연구의 새로운 방법 모색 (1)	제41집(2005년 12월)	송성욱, 박종성, 이순욱 등 3명
요산 김정한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발표대회	제50집(2008년 12월)	김윤식, 김주현, 최강민, 김명석 등 4명
한국전쟁 60주년, 전쟁의 체험과 문학적 대응	제55집(2010년 8월)	임도한, 이승규, 남기택, 김동윤 등 4명
경술국치 100년을 넘어서, 문학 담론의 동아시아적 과제와 전망	제56집	이승윤, 신진숙, 하상일, 이효정, 정훈식 등 5명
한국문학 텍스트의 발굴과 재조명	제63집(2013년 4월)	이복규, 권혁래, 장유정, 진선영 등 4명
한국문학과 부산	제69집(2015년 4월)	이순욱, 윤지영
1960년대 문학의 정치성과 권력	제72집(2016년 4월)	오창은, 김주현
구술문화와 축제성	제73집(2016년 8월)	임재해, 이창식
1980년대 문학·노동·정치	제75집(2017년 4월)	장수익, 손남훈

⇒ ① 연구 영역의 확장과 심화 : 문학연구와 인접학문, 한국문화와 한국문학, 동아시아문화권에서의 한국문학, 재외한인 문학 등으로 연구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있음.

② 텍스트의 다변화(발굴과 재조명) : 민속문학, 대중문학, 문헌학, 지역문학 등의 자료 발굴과 연구 등에도 깊은 관심을 보임.

③ 민족적 국가적 아픔과 한국문학의 사명 : 경술국치 100년의 반성과 앞날의 설계, 동족상잔의 상흔과 문학적 형상, 통일 대비 한국문학 연구의 과제와 전망 등을 통해 민족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의 역할과 사명을 되짚고 있음.

④ 지구촌시대의 한국문학 : 한국문학과 디아스포라,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의 삶과 문학 등에 대한 관심으로 삶의 변화를 주도하고 예견하는 문학으로서의 단면을 살핌.

⑤ 기조발표가 논문으로 수록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해졌으면 한다.

7. 한국문학회 학술총서

- 『해외문화 접촉과 한국문학』, 세종출판사, 2003.

제1부 : '한국문학의 중국문화 접촉과 조선족 문학'이라는 주제 아래 임기중 외 5편의 논문.

제2부 :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맥락과 서구문화 접촉'이란 주제 아래 양문규 외 4편의 논문.

- 『일본문화 접촉과 한국문학』, 세종출판사, 2004.

제1부 : '일본문화와 의 접촉'이라는 주제 아래 김태준 외 5명의 논문

을 수록함.

제2부 : '재일한인의 문학'이라는 주제 아래 이헌홍 외 6명의 논문을 수록함.

- 『한국문학과 불교』, 세종출판사, 2006.
  김병권, 「소대성전 창작원리의 불교사상적 연구」 외 8편의 논문을 수록함.

8. 『한국문학논총』 수록 논문의 영역별 분류(현대문학, 고전문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제1집~제10집	48편	43편
제11집~제20집	82편	82편
제21집~제30집	93편	73편
제31집~제40집	54편	89편
제41집~제50집	46편	104편
제51집~제60집	43편	83편
제61집~제70집	40편	97편
제71집~제75집	16편	43편
총계	422편	514편

⇒ 총 1036편의 논문 중 고전문학이 422편(41%), 현대문학이 514편(59%)의 비율을 보임.

9. 『한국문학논총』 수록 논문의 갈래별 분류(서사, 시가, 극, 교술·비평, 기타)

	서사문학	시가문학	교술·비평문학	극문학
제1집~제10집	28편	55편	6편	2편
제11집~제20집	69편	58편	31편	3편
제21집~제30집	67편	53편	35편	4편
제31집~제40집	54편	49편	33편	4편
제41집~제50집	78편	40편	22편	6편
제51집~제60집	66편	38편	22편	-
제61집~제70집	76편	40편	12편	7편
제71집~제75집	21편	14편	11편	3편
합계(총 1036편)	459편	347편	172편	29편

⇒ 총 1036편의 논문 중 서사문학이 459편(44%), 시가문학이 347편(33%), 교술·비평문학이 172편(17%), 극문학이 29편(2%), 기타가 29편(2%)의 분포를 보임.

** 기타는 문학사가 8편, 문학교육이 13편, 사이버문학이 8편임.

10. 한국문학회 역대 임원진

	기 간	학회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초대	1977~1980	김종우		류탁일	김승찬	김중하
제2대	1981~1984	최동원		김준오	정상박	김승찬
제3대	1985~1987.4.	노재찬		이동영	강남주	김준오

	기 간	학회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제4대	1987.5.~1989.4.	김무조			류탁일	김준오
제5대	1989.5.~1992.6.	성호주		이헌홍	김준오	류종렬
제6대	1992.10.~1994.8.	장관진		류종렬	김준오	이헌홍
제7대	1994.9.~1996.8.	류탁일		김병권		
제8대	1996.9.~1998.8.	김승찬		김병권		
제9대	1998.9.~2001.8.	김중하		박태일, 한태문		
제10대	2001.9.~2003.8.	정상진		박경수, 이진오, 고현철		
제11대	2003.9.~2005.8.	장양수		안영훈, 임주탁, 이재봉		
제12대	2005.9.~2007.8.	이헌홍		이재봉, 임주탁		
제13대	2007.9.~2009.8.	남송우		이재봉, 하상일		
제14대	2009.9.~2011.8.	조태흠	박경수	정준식, 정찬영		
제15대	2011.9.~2013.8.	류종렬	박경수	정준식, 정찬영		
제16대	2013.9.~2015.8.	김병권	임주탁	하강진, 김경연		
제17대	2015.9.~2017.8.	박경수	이재봉	김경연, 박형준		

⇒ ①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연구재단)의 주재로 등재(등재후보)학술지 제도의 시행이 예고됨. 이때부터 총무이사를 2명으로 보강하고, 각종 지표에 맞춰 편집위원회 규정, 연구윤리 규정, 논문심사 규정, 논문투고 규정 등을 제도화함.

② 이어서 편집위원회의 역할과 임무가 강화되고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편집위원장이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게 됨.

③ 1990년대 중반부터 연구이사와 출판이사 등의 숫자가 2명 이상으로 늘어나지만, 실제 업무는 총무이사가 대부분 감당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명단만 수록함.

11. 요약과 제언

(1) 한국문학회는 부산지역 한국문학 연구자들의 자생적 모임에서 출발하여 경남 지역으로 그 구성원을 넓혀,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전국 규모의 한국문학연구 전문학술단체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문학회는 기존 회원 스스로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이 지역을 비롯한 학문 후속세대 모두가 연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무대로서의 자리제공이라는 역할도 아울러 수행할 수 있었음을 밝혀둔다.

(2) 한국문학회는 1977년 창립 당시부터 한국문학연구 학술단체로 출범하였다. 이는 그 연구의 대상이 한국어문학을 넘어 한국문학 연구로 초점화 내지는 전문화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문학회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최초로 출발한 한국문학연구 전문학회가 아닌가 한다. 이에 더하여 한국문학회는 창립 이후 40년 동안에 75권의 논문집에 총 1,036편의 논문을 발표함과 동시에 3권의 학술총서를 간행하는 등의 실적을 남김으로써 한국문학연구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한국문학회 회원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대목이다.

(3) 한국문학회는 풍부하고 다양한 기획주제 연구로 한국문학 연구영역의 확장과 심화는 물론, 텍스트의 발굴과 재조명 등으로 연구의 다변화에도 기여하였다. 그리고 민족적 국가적 아픔과 상흔에 대한 관심 환기와 의미부여, 통일 대비 한국문학 연구의 과제와 전망의 수립 등에도 일조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와 같은 연구 자세와 그로 인한 성과는 그 폭과 깊이가 날로 더해질 것임을 바라 마지않는다. 다만, 기획주제 발표 때의 기조발표 논문이 논문집에 수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발표자에게 독려하여 이를 논문으로 작성 수록하도록 하는 노력이 더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4) 한국문학회의 창립과 학술연구단체로서의 성숙 과정을 둘러보면서 필자는, 희생과 봉사로 학회를 키워온 초창기 회원들의 정신을 계승

하고 발전시킬 책임과 의무가 오늘의 우리 모두에게 부과되고 있음을 거듭 상기코자 한다.

** 이 글에서 보인 각종 자료 및 통계 수치에 큰 오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도 혹시나 오류가 나타난다면, 이는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부지불식간에 생겨난 착오일 것임을 밝혀두면서, 양해를 구함과 동시에 아낌없는 질정을 기다린다.